

벼랑끝 광주경제 살리기, 광주시-76개 기관·단체 뭉쳤다

'광주경제 다 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행사 소비 촉진·투자 활성화 결의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 협약식 광주시 민생경제 위기 극복 신규 12개 등 97개 사업 9800억 투입

광주시와 지역 76개 기관·단체들이 '원팀'으로 뭉쳐 역대급 위기에 빠진 광주경제 살리기에 '올인' 한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9800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경제단체, 산업계 등 76개 기관 단체와 함께 '2025 광주경제 다 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광주 행사를 개최했다.

시와 기관 단체는 12.3 계엄 탄핵 사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참석 기관들은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소비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협력하자는 결의서를 낭독하고 서명했다.

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기아은행 등 금융기관 8곳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광주시와 은행들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시는 소비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투자는 키우는 3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2월까지 연장하고, 공공 배달앱 할인쿠폰 확대, 소비 촉진 캠페인,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자금·이자, 중소기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처우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과 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앞장선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70여개 기관은 착한 소비, 착한 금융,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너진 주주의는 더 단단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는 더 따뜻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광주 경제가 '착착착' 풀려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구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행사에 참석해 경제단체, 산업계 등 76개 기관 단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침체 등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12개, 확대 38개, 지속 47개 등 총 97개 사업에 9800억원을 투입한다. 소비와 투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을 강화하고, 시민생활 부담을 줄여 지역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 방문의 해 운영, 착한소비 캠페인,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 광주공공배달앱 확

대 운영,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소비의 그릇을 키우는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속집행 예산 6조8253억원의 63%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기회복을 돕기로 했다.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도 추가로 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2월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도 광주G-패스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비 어린이가 무료를 실현하고, 청소년·어르신 반값(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을 투입해 6800개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이자를 지원해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머리 맞댔다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

대응사항 공유·보완점 논의

기업 애로사항 정부 건의키로

전남도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진기섭 여수산업단지공단지협의회장,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 여수산

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 대응추진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 경제의 근간을 이룬 여수국가산업단은 단일 규모 세계 최대 화학산업단으로, 산업 침체가 곧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9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위기극복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전략 토론회'와 12월 '여수 석유화학기업 도지사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등 기업 애로 해소방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건의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 말 공공과잉 NCC 설비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자

발적 사업재편 지원,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대전환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정부경쟁력 제고 방안에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전남조직인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추진단'을 신설했다. 여수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2월 내 신청,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 석유화학기업 간담회 지속 추진, 기업 애로사항 정부 건의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기업 추가 애로 사항을 정부 부처에 건의해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대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도로사업 20개 3조3000억원 포함 국가 도로건설계획 반영 5부 능선 넘었다

일괄 예비조사후 내년 상반기 확정

제6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국토교통부(안)에 전남도내 20개 사업(사업비 3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들 사업이 확정되면 전남 곳곳을 잇는 간선도로망이 확충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하거나 확장·개량하는 국가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사·도별 수요조사, 대상지 사전검토,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흥~봉래 확장(31.7km·5142억원) ▲여수 돌산 신북~우두 확장(14.6km·4832억원) ▲장흥 대덕 신리~순지 확장(24.8km·4274억원)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신설(7.8km·4099억원) ▲강진 마량~군동 확장(20.4km·2119억원) ▲화순 도암~춘양 신설(2.8km·1509억원) ▲순천 해룡 국도 대체우회도로 신설(4.6km·977억원) ▲무안 현경 송정-마산 확장(7.6km·70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23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됐으며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개별사업 간 상호 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국가계획 확정 이전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통과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된다.

특히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는 완도와 고흥의 섬과 섬을 잇는 사업으로 지방도에서 국도 승격 이후 첫 단추를 꿴 것으로 섬 주민 교통기반권 확보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돌산 신북-우두 4차로 확장, 순천 해룡국도대체우회도로, 무안 현경 송정-마산 4차로 확장 등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당초 48개 사업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20개 사업이 반영됐다. 이번에 미반영된 사업은 사업 재기획 및 논리 보강을 통해 7차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 선제적 발행

3월까지 할인을 10% 유지

전남도가 올 들어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원을 선제적으로 발행해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은 2025년 정부예산 미반영으로 할인을 축소하 불가피했

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순천, 나주 등 9개 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을 15~20% 확대하는 추가 할인 이벤트를 시행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9185억원 규

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선제적으로 발행한 3500억원이 소진되면 22개 시·군에서 추가로 5185억원(5~10% 할인)을 상품권으로 발행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가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도민에게는 물가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심의필번호 : 제250116-중-35984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민 구강건강 지킴이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Empathy-powered Care



조선대학교치과병원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 062) 616-3800 홈페이지 http://dent.chosun.ac.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